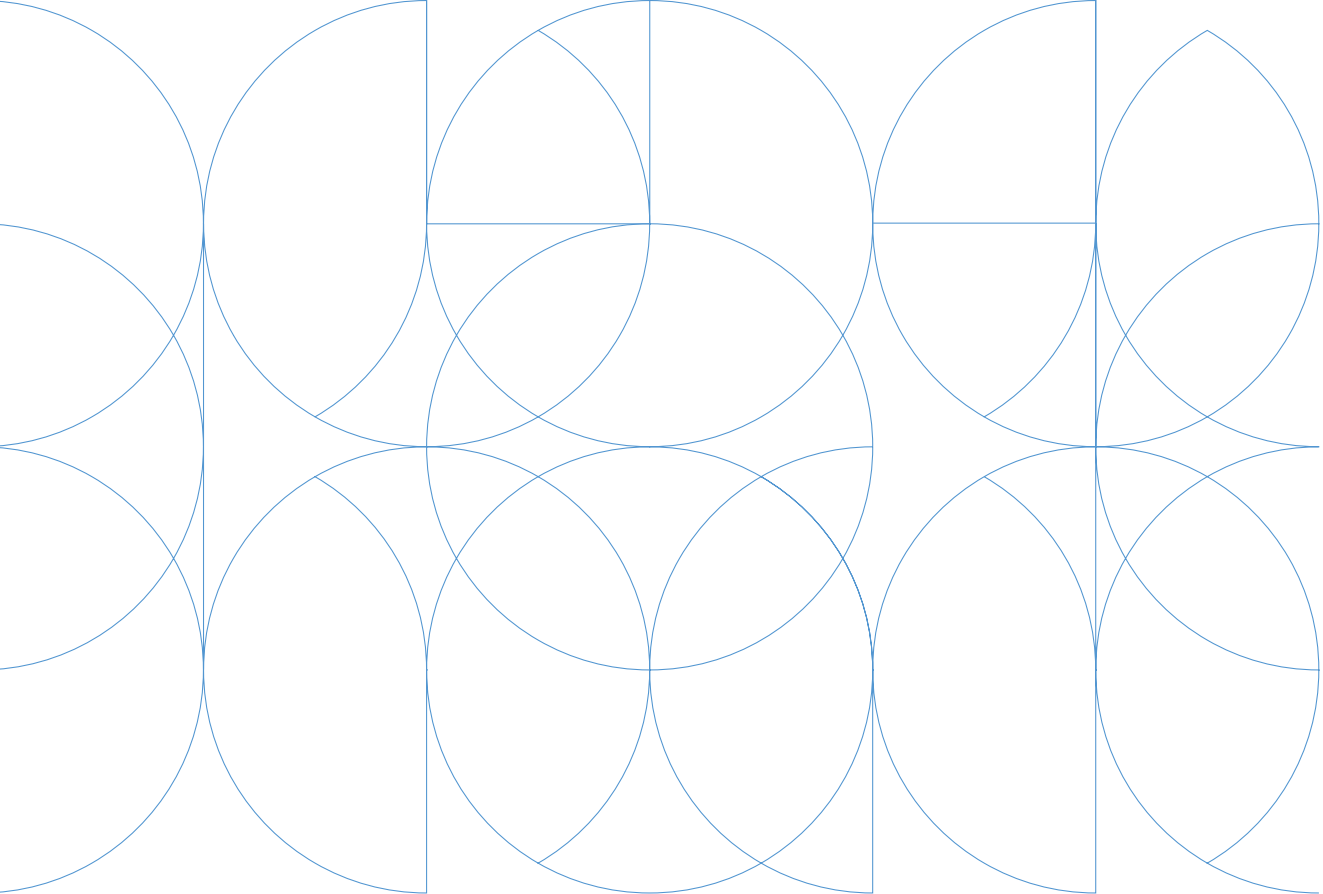


KBS S.O. 826th

2026.5.28.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K www.kbssymphony.org

f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플랑크 F. Poulenc

피아노 듀오/이혁 & 이효
Piano Duo/
Hyuk & Hyo Lee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P 61 Concerto for Two Pianos in d minor, FP 61

Ⓞ 20'

I. Allegro ma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II. Larghetto
조금 느리게
III.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말러 G. Mahler

교향곡 제6번 a단조 '비극적' Symphony No.6 in a minor 'Tragic'

Ⓞ 85'

I. Allegro energico, ma non troppo. Heftig, aber markig.
힘차고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II. Scherzo: Wuchtig
스케르초: 힘 있고 묵직하게
III. Andante moderato
적당히 느리게, 차분하게
IV. Finale: Sostenuto - Allegro moderato - Allegro energico
피날레: 지속적으로 (이어서) - 빠르게 보통의 속도로 - 다시 힘차고 빠르게

※ 총 소요시간: 12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요엘 레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라크 레이블에서 발매했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Yoel Levi, Conductor



피아노 듀오 이혁 & 이효

오늘날 피아노계에서 젊은 파트너십으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이효와 이혁은 두 연주자가 각자 탁월한 솔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주할 때면 보기 드문 음악적 일체감을 선보인다. 두 사람은 각각 뚜렷한 예술적 개성과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독주자로 활약하지만, 같이 무대에 오를 때 발휘되는 그들의 교감은 본능적이면서도 필연적인, 특별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혁은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2021)에서 결선에 올라 시적인 강렬함과 성숙한 음악성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다. 4년 후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2025)에는 두 형제가 함께 참가해 각자의 개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진정성으로 전 세계 청중과 평단을 다시 한번 매료시키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혁은 2022년 파리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음악 전문지 <클라시카>로부터 “눈부신 기교와 타고난 극적 감각을 지닌 태양 같은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은 그는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파리 샹젤리제 극장,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 도쿄 키오이 홀과 같은 주요 무대에 올라 연주하였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그 해 최고의 피아니스트에게 수여되는 ‘코르토 상(Prix Cortot)’을 수상했다.

2007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효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모두 공부했으며, 이후 피아노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아스타나 피아노 패션 국제 콩쿠르,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아니마토 피아노 콩쿠르 (쇼팽 에디션)에서 모두 입상했으며, 2025년 파리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이미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 크라쿠프 필하모닉 홀, 파리 샬 코르토 등의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를 선보인 바 있다.

각자의 개성으로 빛나는 이혁과 이효는 나란히 무대에 오를 때면 하나의 목소리로 어우러지며 개성과 조화의 완벽한 균형을 구현해낸다. 그들의 듀오 연주는 깊은 예술적 신뢰와 두 사람이 공유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매 공연을 형제애와 탁월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으로 탈바꿈한다.

Hyuk & Hyo Lee, Piano Duo



F. POULENC

오늘 공연 1부에서는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2025)를 통해 전 세계 피아노 애호가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기 시작한 이혁, 이효 형제가 폴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P 61>을 연주한다. 쇼팽 콩쿠르 참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형제 피아니스트가 한 무대에서 서는 내한 공연을 기다린 우리나라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자리도 없지 않을까 싶다. 2부에서는 말러가 인생 가장 행복한 시절에 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모든 교향곡 중 가장 짙은 슬픔이 흐르는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감상할 수 있다. 말러는 이 작품을 두고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라 고백했는데, 화려함 뒤의 우울함이 지배했던 그의 아픈 생을 떠올리며 지휘자 요엘 레비와 KBS교향악단의 진중한 호흡을 따라가 보자.

G. MAHLER



폴랑크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P 61 F. Poulenc / Concerto for Two Pianos in d minor, FP 61

작곡 1932년
초연 1932년 9월 5일, 이탈리아 베니스
편성 피아노2, 플루트1, 피콜로1, 오보에2(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트롬본2, 튜바, 스네어드럼, 테너드럼, 필드드럼, 베이스드럼,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서스펜디드 심벌, 현5부
연주시간 약 20분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예술가들, 특히 음악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대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드몽 드 폴리냐크 공주(1865~1943)가 베니스에 머물던 1932년 초 프란시스 폴랑크(1899~1963)에게 의뢰, 탄생한 작품이다. 미국의 싱어 재봉틀 회사 설립자의 자녀였던 폴리냐크 공주는 파리 앙리 마르탱 거리에 위치했던 자신의 저택에 살롱을 만들었고, 이 공간에서 예술 뿐만 아니라 문학,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초대하길 즐겼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살롱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특히 폴리냐크 공주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인 가브리엘 포레(1845~1924), 에릭 사티(1866~1925),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 나디아 불랑제(1887~1979), 프란시스 폴랑크(1899~1963) 등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작품을 의뢰하기도 하고, 연주회를 열어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단, 이때 공주가 작곡가에게 위촉 후, 헌정 받은 작품은 6개월 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조건을 걸었다. 폴랑크는 이 작품을 폴리냐크 공주에게 헌정했다. 1932년 여름 완성되었고, 같은 해 9월 5일 이탈리아 베니스의 국제 현대 음악 협회에서 초연되었다.

초연에서 폴랑크는 제1피아노,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피아니스트 자크 페브리에(1900~1979)가 제2피아노를 맡아, 지휘자 데지레 데포(1885~1960)가 지휘하는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폴랑크는 초연 후 “겸손하지 않고 증언하건대, 첫 무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초연 성공을 자축했다. 이후 이 작품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포핸즈 편곡 버전도 출판되었다.

이 작품을 썼던 시기의 폴랑크는 유쾌하고 즐거움이 풍부한 음악적 요소들에 관심이 많았다. 폴랑크는 “작곡은 주로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중략)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명의 작곡가이자 저의 유일한 스승은 바흐, 모차르트, 사티,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입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소개에서도 그의 밝은 성향이 느껴질 정도다. 폴리냐크 공주는 약 6년 후에 폴랑크에게 한 곡을 더 의뢰했다. 이 작품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오르간, 현악 오케스트라, 팀파니를 위한 협주곡>이다.

I. Allegro ma non troppo

두 대의 피아노는 복잡하지만 경쾌한 대화를 하듯 오케스트라와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특히 시작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등장할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두 대의 피아노 독주 부분에서 반복적이고 타악기적인 선율이다. 또 현란한 기교는 빠른 속도감과 함께 피아노가 가진 모든 음색을 꺼내기 바쁘다. 극적인 진행이 이어진다. 코다에서 들리는 신비로운 음향은 풀랑크가 직접 들었던 발리 전통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II. Larghetto

1악장과 상반되는 진지한 분위기로, 무반주 제1피아노가 시작하는 악장이다. 이 악장은 풀랑크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 음악가 모차르트의 양식을 연상시키다가, 두 대의 피아노는 점점 밝고 경쾌한 어법으로 두터워진다.

III. Allegro molto

타악기들이 명쾌하고 신나는 리듬을 연주한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들은 바흐가 쓴 <토카타> 풍 분위기를 이어간다. 그러다 감상적인 선율과 그 공간을 풀랑크 스타일의 변주로 진행한다. 오케스트라는 마치 피아니스트들의 지휘를 따라가며 신나는 마지막을 장식한다.



>>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 폴리냐크 공주의 살롱에서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시로 재구성한 이미지

말러 / 교향곡 제6번 a단조 '비극적'

G. Mahler / Symphony No.6 in a minor 'Tragic'

작곡	1903년~1904년
초연	1906년 5월 27일, 독일 에센
편성	플루트5(피콜로 겸함), 오보에5(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3, 피콜로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바순4, 콘트라바순, 호른8, 트럼펫6, 트롬본3,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2, 타악기(무대 밖 조율되지 않은 종, 큰북, 작은북, 글로켄슈필, 실로폰, 트라이앵글, 심벌즈, 탬버린, 탐탐, 방울, 루테, 무대 밖의 카우벨, 나무망치), 하프2, 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약 85분

6번째 교향곡은 내가 쓴 5편의 교향곡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한 사람만이 풀 수 있을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 1904년 말러가 리하르트 슈페히트(1870~1932, 오스트리아의 작가, 음악학자)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발췌

구스타브 말러(1860~1911)는 <교향곡 제1번>부터 <교향곡 제5번>을 창작한 시기, 작곡가로 또 지휘자로 인생 그 어느 시절보다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또 아내 알마 말러(1879~1964)와 결혼해, 어린 두 딸과 가정 안에서 인생의 단꿈을 만끽 중이었다. 그는 마치 화양연화와 같은 이 시절에 <교향곡 제6번>을 완성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이때의 기쁨을 작품에 담지 않았다. 물론 알마에 대한 사랑의 선율을 곳곳에 두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슬픔과 비극의 정서로 채웠다. 이 시기 그는 아이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다룬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도 작업 중이었는데, 가장 행복한 시절에 가장 불안한 정서가 담긴 작품을 두 편이나 쓴 그의 복잡한 마음을 기억해도 좋겠다. 그는 이 작품에 어떤 부제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비극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906년 5월 27일 독일 에센에 위치한 잘바우 콘서트홀에서 말러는 6번째 교향곡을 직접 지휘하며 초연했다. 당시 그는 110명 규모의 대형 오케스트라를 꾸렸다. 그는 초연을 포함해 1907년 4월까지 총 3번 이 작품을 직접 지휘했는데, 초연 리허설에서 목격된 그의 모습은 초조한 채 서성거렸고, 때론 흐느꼈고 손을 비비는 모습이였다. 이 작품은 그의 교향곡 중 형식적으로 가장 엄격한 곡이며, 모든 마디가 하나의 직접적이고 완벽하게 논리적인 서사를 이루고 있다. 단조로 끝나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첨예한 논쟁거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악장 순서,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악장에서 나무망치를 몇 번 칠지에 대한 논쟁이다. 말러는 초연에서 2악장 스케르초와 3악장 안단테의 순서를 바꾸었고, 같은 순서로 3차례나 더 지휘했다. 그는 출판사에 공식적으로 악장의 순서 변경을 통보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알마는 초판을 따르는 것이 말러의 마지막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순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말러 관련 학자들과 지휘자들의 생각은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국제말러협회는 최근의 비평에서 말러의 첫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지휘자들이 이 작품을 연주해야 할 때는 음악적 선택에 따라 악장 순서를 정하고 있다. 2악장이 안단테가 되기도 하고 스케르초가 되기도 한다.

또 말러가 처음 작곡한 4악장에서는 나무망치를 다섯 번 내리치라고 표기했지만, 세 번으로 다시 두 번으로 수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 말러가 삶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자 2회로 줄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평소 남편의 기록을 왜곡하기로도 유명한 알마에게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초연 이후 늘 작품을 수정했던 말러의 습관 때문에 악장 순서, 나무망치 연주 횟수에 대한 그의 명확한 결정을 이제 알 길이 없어 아쉽다.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되는 것이다”는 말러의 말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 들어봐도 좋겠다. 오늘 공연에서 KBS교향악단은 스케르초를 먼저 연주하고, 4악장에서 나무망치를 2번 친다.

I. Allegro energico, ma non troppo. Heftig, aber markig.

이 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가 명확하게 구분된 전형적인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다. 고전적 간결함의 전형 을 보여주는 악장으로, 모든 마디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서사를 이루고 있다. 마치 승리의 함성과 같은 행진곡으로 시작한다.

II. Scherzo: Wuchtig

1악장의 행진곡 리듬이 3박자의 구조로 이어진다. 불규칙한 리듬은 온화한 느낌마저 준다. 화음의 뒷받침 없이 독립된 선율들과 얽히고 설키는 말러만의 구조가 빛을 발하는 악장이다.

III. Andante moderato

이 악장은 작품 전체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스케르초보다 앞에 연주되든 뒤에 연주되든, 긴장 감 속에 잠시 여유를 남기며 청자를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든다. 이 시기 작곡 중이던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의 첫 번째 선율이 인용되어 세 차례 등장하며, 따뜻한 현악기의 흐름은 마치 사랑을 회상하는 듯 잔잔하게 이어진다.

IV. Finale: Sostenuto – Allegro moderato – Allegro energico

1악장의 논리 정연한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악장이다. 거의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반복적인 주제 순환, 기계적 인 규칙성으로 오르내리는 파동으로 구성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구조 속에서 매 순간 이전보다 점점 더 강렬해진다. 거대한 나무망치가 큰 나무상자를 내리친다. 갑자기 격동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금관 파트가 올라 가고, 긴 긴 노래가 끝난다.

글 | 정은주(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운명과 열정

FATE AND PASSION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Conductor
Andrés Orozco-Estrada

피아노
브루스 리우
Piano
Bruce Liu

6.17. WED / 6.18.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베토벤 /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L. v. Beethoven / Egmont Overture, Op. 84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단조, 작품 23

P. I. 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 minor, Op. 23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P. I.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운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소재희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Florin Iliescu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악장)	클라리넷	채재일 수석
플루트	안명주 수석	호른	고영종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동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김효수 (주)효석 대표 매크로통상(주)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Prelude	권정숙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희재 노무사 조명형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신플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